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솔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온 우리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뒤틀린 세태에 휘둘리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정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정화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올가미와 함정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태양 같은 주님의 햇살이 되어 외로운 삶의 그늘을 깨끗이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메마른 곳에서는 황량한 광야를 푸른 목초지로 바꾸는 시원한 소나기와도 같이, 우리가 신선한 물줄기가 되어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어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가 있어 이웃들이 행복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22. 시편96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187. 너희 죄 흉악하나 다함께

성경봉독 I. 롬 1:15-17 인도자

II. 고전5:6-8 백혜숙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살아있는 로마서 이성운 전도사

II. 누룩 없이 빛은 빵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212. 너 성결키 위해 다함께
- 헌금봉헌 <연주: 브라스밴드 동호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과 진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 땀흘리십시오. 인생의 보람과 성공을 주님의 척도로 재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꺾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도록 새 힘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8월 동호회	말씀 : 김재흥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기도 : 황선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준우 목사	곽권희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고광송 집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이형숙	박해경
	헌금위원	김철수	이호원	박창운	배삼순	박효선	정영선

발 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것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지닌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나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찾아내게 된 경위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그 보물을 발견한 후의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보물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를 생각해 본다.

나는 이 보물—그것은 하나님일까, 예수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어떤 신념일까, 가치일까, 일일까, 이상일까? 또는 사람인가, 직업인가, 사명인가—어떤 것이든,

그 보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본다.

이 보물을 계속 지니고 있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기쁘게 일할지를 생각해 본다.
아니면 얼마나 기꺼이—어쩌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슬프겠지만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자.

나는 보물.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만약 누가 나를 발견해 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 보물을 캐내는 과정을 상세히 떠올려
그때를 다시 살아 본다.

나는 다면체의 보석인 모양이다.

내 안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들을 끌어내어
나에게 보여 준다.
그 하나 하나를 기쁜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 준 사람들을 떠올리고
한사람 한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선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기시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의 눈에는 수많은 보석의 빛이 반사되고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을 알아보실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 속에서 쉰다.

—안토니 드 멜로,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중에서

우리 자신이 곧 우주이며, 우리 자신이 곧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이 땅이 바로 성스러운 땅이며, 우리는 이 땅과 이어져 있고, 이 땅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깨어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욕탕 문을 열어 놓으면

목욕탕의 문을 열어 놓으면, 목욕탕 안의 온기가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선한 말이라도 많은 말을 하는 영혼은 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후에, 환상으로부터 지켜줄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지성은 적절한 생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혼동과 환상에 어울리지 않는 귀중한 생각들은 말이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침묵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생각의 어머니입니다.

북풍이 불면

북풍은 맑게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남풍이 불면 안개와 구름이 깃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화를 받아 활력을 얻은 영혼은 마귀의 안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러나 오류의 구름이 사납게 몰아치면, 영혼은 죄의 구름으로 완전히 덮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고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을 향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영적 지식의 빛 속에서 그 바람이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겔1:4 참조). 그 때에 영혼의 관상 기능은 깨끗한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거룩한 것의 관상에 몰두하며, 빛이 충만한 대기 속에서 빛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지식의 빛입니다.

-5세기 북부 그리스의 포티케의 감독이었던 디아도쿠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준호 관혜자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김혜권 박병구
이선림 이한림 김명희 정완수 김재광 조관행 최홍선희 최종원 오정숙
권미숙 윤석철 장혜숙 전세종

월정헌금:

김명순 권혁순 박혜경 박병구 박석희 박옥순 최윤희 황원순 황자순
김남종 오복순 이은자

감사헌금:

양재성 황재성 정완수 김재광 김명순 권미숙 김수연 김남홍 권채영
최윤희 오정숙 무명1

생일감사헌금: 허경기

캄보디아우물헌금: 김대근 백묘현 장주연 이정은 이유나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윤석철 장혜숙 최윤희 이선림 정두리 홍순주 안홍숙 홍지희
(누계-91,47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홍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8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들과 더불어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3. **성서학당** : 9월 13일에 개학합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예수는 누구인가?'(김기석 목사)를 주제로, 저녁에는 '웨슬리 설교 강독'(김재홍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4. **재해헌금** : 다음 주일에는 큰 수해를 만난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5. **통일학교** : 기독교청년아카데미가 주최하는 통일학교가 9월 11일(화)부터 8주 동안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내 흠어졌던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나사렛속

토요봉사(2일): 최숙화, 배삼순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고요한

9월	영접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애 진정숙
	헌금	조병무 김종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문인옥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